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 목)

Website : www.stfranciscok.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Email : stfrancisk.org@gmail.com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투스 평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사도 9, 26-31

[화답송] 시편 22(21)26ㄴ-27.28과 30ㄴ.30ㄷ-32(㉔26ㄱ참조)



(후렴) 주님,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 하나이다.

-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나의 서원 채우리라.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 찾는 이들은 그분을 찬양하라. 너희 마음 길이 살리라! ◎
- 온 세상 땅끝마다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만 민족 모든 가문 그분 앞에 경배하리니, 세상 모든 권세가들 그분께만 경배하고, 흠으로 돌아가는 모든 이들 그분께 무릎 꿇으리라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1요한 3,18-24

[복음환호송] 요한 15,4,5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복음] 요한 15,1-8

[성가안내]

- 입당성가 [253] 네 마리를 꾸미오리
- 봉헌성가 [211] 주여 나의 몸과 맘
- 성체성가 [504] 우리와 함께 주여
- 파견성가 [244] 성모의 성월

미사 봉헌

연기사	봉헌
전마사자 카타리나 김화자 소화테레사, 정인해 예로니모 김영우 요셉, 강건대 마리아 부부 박준섭 콜만 한영호 시메온	김종화 필립보 가족 김영숙 카타리나 김지영 유스티나 송호연 테레사 한정민 쟈마
생기사	봉헌
공동체 모든 분들 임금종 마가렛 임금종 마가렛 윤숙자 루시아 (영육의 건강 위해) 정 윌리엄 (쾌유를 위해) 하순자 마리아 (건강 회복)	안선정 마리안나 성령기도회 김보현 엘리사벳 윤요한 몬세랏 공동체 윤루시아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5월 2일	장혜윤 크리스티나	박기목 알버트	조규진 아녜스	조규진 아녜스	유정옥 유스티나
5월 9일	김진섭 야고보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이경자 율리안나	이경자 율리안나	민덕미 안젤라

[축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요~]

- 5. 2 아타나시오 5. 3 필립보 5. 3. (작은 야고보)
- 5. 14 마티아 5. 15 파코미오 5. 22. 리따
- 5. 26 필립보네리 5. 31 엘리사벳

● **‘성모 성월 - 5월’**

팬데믹으로 ‘성모의 밤’을 통한 성모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전구를 못 드리게 되어, 5월 중 매주 주일 미사 입당 시 간단하게 우리 공동체의 정성을 표현 하고자 합니다. 한 마음으로 참석합니다.

- 5월 2일 - 성모님께 화관 씌워드릴 (공동체를 대표하여 신부님)
- 5월 9일 - 초 봉헌 - 레지오 팀 대표 7명과 원하시는 분들
- 5월 16일 - 꽃 봉헌 - 레지오 팀 대표 7명과 원하시는 분들
- 5월 23일 - 성모님께 드리는 글 - 꾸리아 대표
- 5월 30일 - 성모님께 드리는 성가대의 특송

- - **아시안 증오 범죄에 노출되었거나 경험하신분** 중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신부님이나 수녀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주 정부 전화 신고 방법 : 311로 전화
(원하면 언어권별 통역자 상시 대기함)

● **신부님과 함께 하는 성경 묵상 (대면)**

신부님과 함께 대면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각자 묵상한 것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신부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월 한달 동안 모집합니다. 일시와 장소는 신청자의 상황을 보고 추후 공지합니다. **신청 : 신부님께 직접**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성당 풍물패 <가칭 : 신명> 풍물패 단원을 모집합니다."**

팽과리, 징, 북, 장구를 배우고 싶거나,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신부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한 **장소를 찾고 있으며** 우선은 뉴저지의 한 장소에서 시작합니다. **시작 일시는** 회원들이 모이는 대로 할 예정입니다.

● **청년 성서 모임 개강 안내 (Zoom Meeting)**

- 신청마감 : 5월 16일
- 첫모임 : 5월 23일 오후 1시
- 범위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복음, 요한 복음
- 문의 : 대표 봉사자 김 진섭 야고보 (201-912-7577)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 성 베네딕도의 규칙서 7장 -
겸손에 대하여 계속

겸손의 넷째 단계는, 순명에 있어 어렵고 비위에 거슬리는 일 또는 당한 모욕까지도 의식적으로 묵묵히 인내로써 받아들이며, 이를 견디어 내면서 싫증을 내거나 물러가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서에는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였고, 또 “네 마음을 굳게 가지고 주님을 견디어내라”고 하셨다. 충실한 자는 비위에 거슬리는 모든 것까지도 주님을 위해 참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성서는 수난자의 입장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종일토록 당신을 위하여 죽어가고, 도살당할 양들처럼 여겨지나이다” 하신다. 또 그들은 하느님의 보답에 확실한 희망을 걸고 기뻐하며,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시련을 이겨냅니다”라고 말한다. 또 다른 곳에서 성서는 “하느님, 은덩이를 풀무불로 달구어 내듯 당신이 우리를 불로 단련시키셨으니, 올라가미에 우리가 걸리게 하시고, 환난을 우리 등에 지워 주시나이다”라고 하신다. 또 우리가 장상밑에 있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 계속해서 말하기를 “사람들을 우리의 머리 위에 두셨나이다”라고 하신다. 나아가서 그들은 역경과 모욕 중에서도 주님의 계명들을 인내로써 채워 한쪽 뺨을 치는 이에게 다른 쪽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빼앗는 이에게 걸옷마저 주며, 오리를 가자고 강요하는 이에게 십리를 가주고, 사도 바울로와 같이, 거짓 형제들을 참아주고 박해하는 이들을 참아주고 자기를 저주하는 이들을 축복해 준다.

겸손의 다섯째 단계는,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든 악한 생각이나 남모르게 범한 죄악들을 겸손된 고백을 통하여 야빠스에게 숨기지 않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성서는 우리에게 권고하여 말하기를 “네 길을 주께 드러내고 그를 믿어라” 하시고 또 “주님이 좋으시니 그분께 고백하라. 그분이 자비는 영원하시다” 하시며 또다시 예언자는 “내가 당신께 내 잘못을 고백하고, 내 마음의 불충을 용서해 주셨나이다”라고 하신다.

겸손의 여섯째 단계는, 수도승이 온갖 비천한 것이나 가장 나쁜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에게 부여된 모든 일에 있어, 자신을 나쁘고 부당한 일꾼으로 여겨 예언자와 함께 “나는 쓸모없는 자이오며 알아듣지도 못하였나이다. 나는 당신 앞에서 짐승과 같은 처지로나 늘 당신과 함께 있겠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성사 안내]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주일 오전 8:30 ~ 8:50 지하 성당 고백실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및 견진교리	기간 : 9월 시작 - 다음해 4월 주일 10:50am - 12:00pm, 클레어 룸

[단체모임 안내] : 추후 공지 때까지 중단합니다.

요셉회	2nd 주일 11:00am	Conf. Rm(2F)
성모회	2nd 주일 11:00am	교육관 4
연령회	2nd 주일 11:00am	Lower Church
꾸리아	3rd 주일 11:00am	Lower Church
울뜨레야	1st 주일 11:00am	교육관 4
양업회	3rd 주일 11:00am	Conf. Rm(2F)
성령기도회	매주 화 06:00pm-07:30pm	Conf. Rm(2F)
학부모회	1st 주일 11:00am	교육관 3
예수성가정회 (FYMNY)	4th 주일 11:00am	Francis Room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 | | |
|---------------|-----------|
| 김순한(루시아) | 김옥지(아가다) |
| 전마지(마가렛) | 이재오(클레멘트) |
| 이종환(토마스 아퀴나스) | 김동희(헬레나) |
| 이정주(소화테레사) | 김용기(요셉) |
| 정창동(폴리나) | 고종호(마태오) |
| 지군자(스테파니) | 홍봉운(바로로) |
| 이경봉 (요셉그레고리오) | 정영도, 노의선 |

부활 제 5 주일 성경 묵상

(사도행전 9,26-31/요한 3,18-24/요한 15,1-8)

오늘 제2독서에서 요한 사도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권고합니다. 실천이 없는 사랑은 알맹이 없는 사랑 곧 껍데기만 남은 가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성경을 펼치면 온통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듯합니다. 신부님들의 강론이나 여러 신앙 강좌의 주제 또한 사랑에 대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귀가 따갑도록 듣는 말도 사랑이고 인기 많은 대중가요의 주제로도 사랑은 단골 메뉴입니다. 사랑하고 있을 때 이런 노래를 들으면, 더 가슴이 뛰고 기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이 세상은 온통 사랑이라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너무나도 흔해 쉽게 휴지통에 버리는 휴짓조각처럼 날려 있기도 하고, 내가 가진 것만 사랑이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쉬이 판단해 버리기도 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사랑은 점점 사라지고 경시되며, 유치한 것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사랑보다는 돈과 명예 그 밖에 많은 물질적인 것에 사랑의 자리를 양보하고 "사랑이 밥 먹여 주니?"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 복음을 통하여 주님께서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요한 15,9). 예수님께서서는 사랑 그 자체이시기에 당신과 함께 머무름이 참사랑임을 알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무른다면 이 사랑은 머무름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 주신 자기 증여의 삶 곧 이타적인 삶으로 이어져,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2).

- 신 우식 토마스 신부 -

[2021년 5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복음화 지향 : 금융계

금융 질서를 정립하여 시민들을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게 금융 책임자들이 정부와 협력하도록 기도합니다.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 58th WE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CAMPUS Education
Learn English with US
유학생 환영
212-868-9777 (한국어 상담)
koreanny@studyoncampus.com
410 8th Ave. 5 FL New York

광고주를 찾습니다

